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¹⁾



박종무
평화와생명이함께하는동물병원 원장
생명윤리학석사
dubagi@hanmail.net

1. 서론

경제적인 발전과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 등 현대사회의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애완동물의 증가와 함께 비례하여 유기동물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동물을 안락사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2012년 99,254마리의 유기동물 중 10일 만에 50%가 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와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본고는 우리가 유기동물을 이렇게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고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또 오늘날을 우리는 생명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생명위기의 시대는 낙태나 사형, 인간의 안락사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면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생명의 위기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인간 위주로 판단하고 다른 생명은 인간의 소모품으로 여기면서 발생한 측면 또한 있다. 이에 본고는 인간중심적인 생명관의 대안인 생명중심적인 생명관을 간략히 살펴본다.

2. 본론

가. 동물이라는 생명에 대한 재인식

먼저 본고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본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이성을 기준으로 동물은 인간을 위한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화인버그는 '이익관심'을 갖기 때문에, 또 싱어는 '고통을 느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진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기준들 또한 기본적으로 인간의 특징들을 기준으로 삼은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적 생명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싱어나 레진의 기준에 의하면 포유류의 몇 종류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뿐 곤충이나 연체동물 그리고 어류나 파충류와 같은 자연계의 많은 생물들이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배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싱어나 레진에 의하면 곤충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생태계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존재가 없다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고 생태계의 기반 위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 또한 존재할 수

1) 본 글은 생명윤리학 석사논문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을 요약한 글이다.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구 생명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적 생명관을 극복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중심적인 생명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명중심적인 생명관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동물은 신의 피조물로서 인간과 더불어 거주하며 인간의 윤리, 책임, 의무의 범위 안에 있는 존재라며 동물의 범위를 넘어 모든 생명을 범하지 말자는 간디의 '아힘사' 사상이다. 두 번째는 타인들을 포함하여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살아 있는 모든 현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동정심 윤리이다. 세 번째는 이 세상 만물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수한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깨우침을 주는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이야기한 폴 테일러의 사상이다.

나. 유기동물의 현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99,254마리의 유기동물이 보고되었다. 시민에 의해 구청에 신고된 유기동물은 포획되어 동물보호소에 입소된다.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공고를 내고 10일 간 보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킨다. 예전에는 고양이도 안락사를 시켰지만 지금은 중성화수술을 하여 원래 살던 곳에 방사시키는 TNR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각 지자체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이나 관리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탁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소 위탁은 매년 경쟁 입찰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최소의 금액으로 입찰을 한다. 또 이들 업체들 중에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 낮은 입찰금으로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에 최소한의 금액을 들이려고 한다. 심한 경우 어차피 안락사 시킬거라며 사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매년 입찰로 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보호소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보호소의 환경은 열악한 상태이다. 그에 따라 유기동물 중 안락사를 하기 이전에 전염병 감염을 비롯한 질병으로 20%가 넘는 유기동물이 죽음을 맞이한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구청과 유기동물 처리 두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기동물보호소는 규모가 크지 않고 열악하다. 그래서 먼저 입소한 유기동물은 다른 유기동물을 들이기 위해 공고기간 10일이 경과되면 안락사된다.

다. 외국 유기동물 현황

WSPA와 같은 외국의 많은 동물보호단체는 불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동물이 고통스러울 때나 질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다른 동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는 지양한다. 그들은 유기동물의 안락사와 관련하여 의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개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생명이 최대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입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 유기동물 해결의 발전적 사례

유기동물의 안락사에 대하여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안락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은 안락사 위기에 있는 유기동물을 데려와 필요한 건강검진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를 하여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서 입양을 보내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이곳은 보호하는 유기동물의 개체수를 정하여 입양을 가는 만큼 새로운 유기동물을 맞이하여 보호소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양시 수의사회는 시민들과 연계하여 버려진 동물을 일산 정발산역 부근의 광장에서 입양활동을 하고 있다. 공원에 산책을 나왔던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많은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고 있다. 또 서울대공원에 있는 서울시의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할 처지에 있는 유기동물을 데려와 건강검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행동의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적합한 입양자를 찾아서 입양을 보내고 있다. 또 유기동물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교육과 입양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 유기동물 해결의 발전적 방안

유기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하나는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문제점의 개선책 마련과 다른 하나는 유기동물이 양산되는 시스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당 정산하는 위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 시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보호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표준화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유기동물 보호소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활발한 입양활동을 펼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소가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를 찾아가기까지 보호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민해볼 것은 현재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강화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번식장 통제를 바탕으로 하여 동물분양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각 개인의 무분별한 애완동물 번식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 보호자의 동물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과 의료인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3. 결론

안락사는 한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 실시되고 있는 안락사는 유기동물을 위한 것도 아니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유기동물을 다루는 방식을 안락사라고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며 살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 이러한 정책은 매우 반생명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반생명적

인 정책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또 오늘날 생명의 위기는 생명을 바라보는 생명관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생명을 도구화하면서 심화된 측면 또한 있다. 그러기에 인간중심적인 생명관을 생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중심적인 생명관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

